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과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Self-Esteem, Depres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서용원*, 이지숙**, 김현순***, 임명호****

단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단국대학교 교양대학 교양학부***,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심리학과****

Yong Won Seo(sensygr@naver.com)*, Jee Sook Lee(jeesook@dankook.ac.kr)**
Hyun Soon Kim(khsbcr@dankook.ac.kr)***, Myung Ho Lim(paperose@dku.edu)****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과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한 달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4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에서 중학생 399명, 고등학생 366명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인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이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은 청소년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은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유형과 정적 상관관계가,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유형과 부적 상관관계가, 우울은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유형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 현장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과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담중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중고등학생 |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 | 자아존중감 | 우울 | 진로 의사결정유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self-esteem, depres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he subjects were 399 middle school students and 366 high school students in four middle schools and two high schools in metropolitan and small towns for one month from July 1, 2017.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see how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self-esteem, and depression affect the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s a result, first,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uitive career decision-making style of adolescents. Second, self-esteem of adolesc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rational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endent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depre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endent career decision-making style. The results may help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self-esteem, depres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be used for counseling intervention.

■ **keyword** : |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 Self-esteem | Depression |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

I. 서론

변화하는 환경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허정철[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탐색을 하게 되며,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합리성이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진로를 결정하는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성격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 박영호와 유영애[3]는 부모의 축진적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며, 자녀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내적 통제성을 발달시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4-6]에 따르면,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의존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첫째로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둘째로 청소년의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서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 의사결정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진로 의사결정과 자아존중감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7-9]가 있었으며, 의사소통과 우울간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10][11]가 있었다.

의사소통과 정서적인 변인인 우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염소림과 최유석[10]은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감과 신뢰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현시와 이윤주[11]도 어머니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녀 독립시기의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은

곧 부모-자녀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호식과 김근화[12]는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의 시간이 많을 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때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희자와 김정원[13]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그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의 개방성 여부나 시간, 만족도 외에도 긍정성, 부정성 측면에서 국길숙과 이미숙[14]은 부모 혹은 어느 한 쪽 부모라도 청소년 자녀와 긍정형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부정형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4-6]에서와 같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칠 때, 의사소통과 상호작용하는 정서적 특성인 우울[10][11]과 자아존중감[12-14]도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희와 이은희[15]는 불안, 우울, 강박 등의 정서적 문제가 만성적 진로 미결정과 연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이혜순과 옥지원[16]도 중학생의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과는 역 상관관계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선행연구[7-9]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즉 진로결정 효능감[17], 부모의 양육태도[1][18], 자아정체감[15][19][20], 자기효능감[21] 외에 정서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공윤정[22]은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논의에서 정서가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진로상담에서 정서를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주요한 정서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서적 요인이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진로결정의 시기에 진로 의사결정유형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또

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이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유형과 의사결정유형

Harren(1978; 1979)은 Dinklage(1968)가 분류한 의사결정유형을 재구성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의사결정 스타일로 분류했다[23](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독립변수들과 의사결정시의 합리성, 의존성, 직관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용어의 정의상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을 따랐다.

합리적 유형은 확장된 시간조망 내에서 연속적인 결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진다. 직관적 유형은 합리적 유형과 같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보탐색 행동이나 대안들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 과정도 거의 갖지 않는다. 의존적 유형은 합리적, 직관적 유형과는 다르게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다[23].

이현주[24]는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며 반대로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유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좋은 가족의 주요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어린이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그들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확립하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다[25]. 또한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26]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에서 가장 높았고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에서 가장 낮았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각은 부모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음을 시

사한다. 선행연구[4-6][17]에서도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의존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 요인인 개방적 의사소통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유형이다. 문제적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의사소통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27].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유형을 Olson과 Barnes의 개방형과 문제형[28]으로 구분하고 있는 다수의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구분하였다.

2. 자아존중감과 의사결정유형

Harren[29]은 개인이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진로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상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자아개념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아개념의 하나로서 단일한 차원의 개념인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Baumeister[30]는 가치롭거나 그렇지 못한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 상응하는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 측면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과 문제대처 스타일에 대하여 Thoits[31]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나 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 능동적 대처전략을 채택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감정에 초점을 맞춘 수동적, 회피적 대처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 대처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개인이 의사결정방식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성경과 남상인[7]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에서 합리적 유형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의

존적 유형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고 밝혔으며, 송소원[8]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석강[9]은 4개의 자아존중감 하위차원 중 자기비하를 덜 할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확신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신뢰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여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존하여 의사결정 할 가능성이 높다[7]. 이는 또한 자아존중감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우울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

9세-24세의 청소년 3265명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연속 2주 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4.1%로 2011년의 37.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아 청소년의 우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32]. 박정희와 이은희[15]는 불안/우울 및 강박증의 성격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주변의 사회적 지원(친구, 부모)의 부족을 경험하며 주변인(친구, 부모)의 많은 통제를 경험하여 결국에는 자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을 통하여 만성적인 진로 미결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정서적 특성이 자율성의 문제와 연동하여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울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017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각각 소재하는 4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유선으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허락을 받고 총 25개 반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학교 유형, 성, 학년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180명을 목표로 배부한 결과, 총 842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무성의한 반응과 무응답 그리고 부모 중 한쪽 부모에 대한 문항만 응답한 경우 등 77부를 제외하고 중학생 399명, 고등학생 366명의 총 765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먼저 담임선생님에게 연구개요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 담임선생님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가 보고에 의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OO대학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DK-2017-02-004).

2. 측정도구

2.1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척도

가족 내 의사소통 및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의 평가도구로서 Olson과 Barnes[28]가 개발한 PAC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도구를 김윤희[33]가 번안한 것(청소년용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1점에서 5점까지(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하위 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10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설문응답자가 아버지-개방형, 아버지-문제형, 어머니-개방형, 어머니-문제형에 각각 응답하여 하위 요인별로 얻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개방적, 문제적이라고 평가한다. 신뢰도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alpha=.947$, 문제형 의사소통은 Cronbach $\alpha=.928$ 로 나타났다.

2.2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34]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를 전병재[35]가 번안한 것(10문항, 5점

Likert 척도)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중 5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전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구성되었으나, 역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설문응답자가 얻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alpha=.869로 나타났다.

2.3 우울 척도

Radloff[36]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경규와 이민규[37]가 한국판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경규와 이민규는 한국판 CES-D를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거의 드물게’를 0점으로, ‘대부분’을 3점으로 평정하였다. 4번, 8번, 12번, 16번 문항은 역문항이다. 총점은 0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전체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alpha=.778로서 전경규와 이민규[3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 alpha=.89에 비교하여 낮았다.

2.4 의사결정유형 검사

Harren[29]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검사를 고향자[23]가 번안하고, 우리 한국문화에 알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아주 그렇다”(4점)로 평정하는 방식의 4점 척도이다. 전체 30개 문항은 개인이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총점은 10점부터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합리적, 의존적, 직관적이라고 평가한다.

Harren(1984)[29]의 연구에 보고된 신뢰도(Cronbach α)는 합리적 유형이 .81, 직관적 유형이 .54, 의존적 유형이 .78로 나타났다. 고향자[23]에 의해 제작된 도구의 신뢰도는 합리적 유형 .78, 직관적 유형 .83, 의존적 유형이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내적 신뢰도

를 산출한 결과 합리적 유형 Cronbach alpha=.86, 의존적 유형 Cronbach alpha=.77, 직관적 유형은 Cronbach alpha=.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분석도구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진로의사결정유형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중 남학생은 51.8%, 여학생은 48.2%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중3이 32.2%로 가장 많았고, 고3 23.5%, 중2 20.0%, 고1 15.3%, 고2가 9.0%의 순의 분포를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765)

변인	빈도(%)	
성별	남	396 (51.8)
	여	369 (48.2)
학년	중2	153 (20.0)
	중3	246 (32.2)
	고1	117 (15.3)
	고2	69 (9.0)
	고3	180 (23.5)
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28 (3.7)
	고졸	339 (44.3)
	대졸이상	398 (52.0)
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30 (3.9)
	고졸	386 (50.5)
	대졸이상	349 (45.6)

부모의 교육수준에 대한 응답비율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 이상 52.0%, 고졸 44.3%, 중졸이하 3.7%, 어머니께 방형의 경우 고졸 50.5%, 대졸이상 45.6%, 중졸이하가 3.9%로 부모 모두 전체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주었다.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개방형의 평균(35.47)이 아버지-문제형의 평균(23.12)보다 높게 나타나 중고등학생이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어머니-개방형의 평균(37.03)이 어머니-문제형의 평균(22.64)보다 높게 나타나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유형(25.12)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고등학생은 스스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765)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아버지-개방형	35.47	8.005	10	50
어머니-개방형	37.03	7.673	10	50
아버지-문제형	23.12	7.426	10	50
어머니-문제형	22.64	7.152	10	50
자아존중감	36.82	6.631	14	50
우울	15.18	10.603	0	52
합리형	25.12	5.832	10	40
의존형	20.40	5.224	10	38
직관형	23.83	5.282	10	40

3.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주요변인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라서 합리형(F=9.178, p<.001)과 직관형(F=2.550, p<.05)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중2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관해서는 합리형의 경우만 아버지(F=6.273, p<.01), 어머니(F=5.116, <.01)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우울과 진로의사결정관계에 대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합리유형은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

관을 보였고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의존유형은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직관유형은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의 차이 (N=765)

변인	범주 (빈도)	진로의사결정		
		합리유형평균 (표준편차)	의존유형 평균 (표준편차)	직관유형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학생 (396)	25.35 (5.743)	20.46 (5.142)	24.08 (5.209)
	여학생 (369)	24.88 (5.924)	20.33 (5.317)	23.57 (5.354)
	t값	1.115 (p=.265)	.362 (p=.718)	1.340 (p=.181)
학년	중2 (153)	22.68(a) (5.435)	20.41 (4.928)	22.84(a) (4.579)
	중3 (246)	25.88(b) (5.536)	20.56 (5.265)	24.15(b) (4.974)
	고1 (117)	26.15(c) (6.329)	19.69 (5.500)	24.38(c) (5.804)
	고2 (69)	25.55(d) (5.960)	21.64 (5.826)	24.72(d) (6.708)
	고3 (180)	25.32(e) (5.656)	20.16 (4.941)	23.54(e) (5.187)
	F	9.178 (p<.001)***	1.660 (p=.157)	2.550 (p=.038)*
	Scheffe	b,c,d,e)a		b,c,d,e)a
부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8)	23.93 (5.630)	20.93 (4.586)	24.43 (4.550)
	고졸 (339)	24.39(a) (5.988)	20.00 (5.483)	23.35 (5.326)
	대졸 이상 (398)	25.83(b) (5.631)	20.70 (5.025)	24.20 (5.270)
	F	6.273 (p=.002)**	1.776 (p=.170)	2.522 (p=.081)
	Scheffe	a<b		
모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0)	24.20 (6.677)	19.43 (5.399)	23.93 (5.139)
	고졸 (386)	24.53(a) (5.901)	20.22 (5.315)	23.64 (5.190)
	대졸 이상 (349)	25.85(b) (5.607)	20.68 (5.102)	24.03 (5.401)
	F	5.116 (p=.006)**	1.258 (p=.285)	.502 (p=.605)
	Scheffe	a<b		

* p<.05 **p<.01 ***p<.001

표 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우울, 의사결정유형의 상관관계 (N=765)

	아버지 -개방형	아버지 -문제형	어머니 -개방형	어머니 -문제형	자아 존중감	우울	합리유형	의존유형	직관유형
아버지-개방형	1								
아버지-문제형	-.781** (p<.001)	1							
어머니-개방형	.800** (p<.001)	-.642** (p<.001)	1						
어머니-문제형	-.668** (p<.001)	.896** (p<.001)	-.724** (p<.001)	1					
자아존중감	.507** (p<.001)	-.520** (p<.001)	.508** (p<.001)	-.531** (p<.001)	1				
우울	-.421** (p<.001)	.490** (p<.001)	-.403** (p<.001)	.492** (p<.001)	-.637** (p<.001)	1			
합리유형	.234** (p<.001)	-.172** (p<.001)	.255** (p<.001)	-.167** (p<.001)	.189** (p<.001)	-.063 (p=.081)	1		
의존유형	-.052 (p=.150)	.152** (p<.001)	-.037 (p=.302)	.153** (p<.001)	-.220** (p<.001)	.343** (p<.001)	.118** (p=.001)	1	
직관유형	.137** (p<.001)	.009 (p=.802)	.126** (p<.001)	.021 (p=.555)	.099** (p=.006)	.070 (p=.052)	.159** (p<.001)	.209** (p<.001)	1

**p<.01

표 5.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변인	합리유형			의존유형			직관유형		
		β	se	유의 확률	β	se	유의 확률	β	se	유의 확률
1	상수		1,552	p<.001		1,411	p<.001		1,424	p<.001
	학년	.115	.044	.002	-.008	.040	.836	.040	.040	.280
	성별	-.037	.419	.300	-.016	.381	.660	-.049	.384	.180
	부의 교육수준	.101	.429	.016	.024	.390	.576	.062	.394	.142
	모의 교육수준	.079	.432	.060	.043	.393	.313	.004	.396	.918
2	상수		3,171	.026		2,769	p<.001		2,897	.299
	학년	.102	.043	.004	.003	.037	.940	.038	.039	.288
	성별	-.502	.419	.146	-.088	.366	.012	-.057	.383	.114
	부의 교육수준	.062	.419	.130	.040	.366	.313	.032	.383	.444
	모의 교육수준	.075	.418	.067	.042	.365	.295	.000	.382	.999
	아버지-개방형	.013	.062	.881	.086	.055	.305	.239	.057	.006**
	아버지-문제형	-.083	.089	.465	.055	.077	.618	.167	.081	.144
	어머니-개방형	.243	.059	.002**	.148	.051	.051	.110	.054	.159
	어머니-문제형	.112	.085	.282	.061	.074	.548	.113	.078	.284
	자아존중감	.139	.122	.004**	-.068	.037	.151	.192	.039	p < .001 ***
	우울	.133	.026	.004**	.357	.022	p < .001 ***	.213		p < .001 ***
F		8,941***			13,349***			7,491***		
R제곱		.106			.150			.090		
adjusted R제곱		.094			.139			.078		

*p<.05 **p<.01 ***p<.001

5.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학년(β=.115, p<.05)과 부의 교육수준(β=.101, p<.05)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 2에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유형에는, 주요변수 중에서 어머니-개방형(β=.243, p<.05)과 자아존중감(β=.139,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을 10.6% 설명하고 있다. 또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유형에는 우울

($\beta=.357,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은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을 15%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유형에는 아버지-개방형($\beta=.239, p<.01$)과 자아존중감($\beta=.192,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을 9.0% 설명하고 있다. 변수투입과정에서 학년은 5개의 더미변수로, 성별은 2개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공선성진단을 위해 먼저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0.9미만이었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대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233~0.409으로 모두 0.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는 4.290~2.444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의

학년에 따라 합리형과 직관형에서 중2의 평균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성장시기와 입시 환경의 특성상 정서적 혼란과 입시에 매몰되어 의사결정의 자기주도성을 잃은 결과로 추정된다. 또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합리형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안광자[4], 김애숙[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청소년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면 부모의 교육정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어머니-개방형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변인들에서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어머니-문제형 의사소통유형, 우울과 같은 부정적 변인들에게서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광자[4], 김형신[6], 허정철[1]의 연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애숙[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결과에서 아버지-개방형 의사소통유형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더 합리적인 의사소

통을 보였다는 안광자[4], 허정철[1]의 연구결과와는 부합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더욱 직관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직관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안광자[4], 김애숙[5]의 보고와 어머니와 개방형, 아버지와 폐쇄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을 한다는 김형신[6]의 보고와 부합되지 않으며, 문제형의 의사소통을 할수록 직관적이거나 의존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였다는 허정철[1]의 보고와도 부합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 분위기가 자녀로 하여금 대안에 대한 논리적 평가나 정보탐색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로 직관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 시간차에 따른 사회적, 가정적 환경변화와 설문 사례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상관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합리유형, 직관유형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의존유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정성경과 남상인[7], 최석강[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회귀분석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더 합리적이고 더 직관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울 증상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서 동시에 의존적인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적변수와 인지적 변수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우울과 불안이 아버지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에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아버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관계가 청소년들의 심리 건강에 중요한 요소[38]라는 보고와 부합된다. 선행연구[4-6]에서는, 주로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간의 연관성, 문제형 의사소통과 의존적인 진로의사결정 간의 연관성만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결과를 보완하였다. 그 결과로서, 합리유형과 직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각각 어머니 개방형과 아버지 개방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부모의 문제형 소통보다는 개방형 소통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있어서 자녀의 합리성은 어머니로부터, 직관성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더 받는다는 뜻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합리유형과 직관유형에서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유형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부합된다. 한편 우울은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보였는데, 이로부터 의사결정유형에 정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고등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관련된 교육과 상담에서 우울에 대한 예방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시기에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문제를 다룰 때에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각 가정과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중고등학생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우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지기 때문에 대상군의 인지적 능력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분석 시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태 혹은 교육연한을 통제요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고른 분포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학년 간의 편차가 있었다. 둘째, 횡단 연구이므로 양군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었으며,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 우울과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연관성만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만을 조사하였으나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유형을 함께 조사한다면 좀 더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성, 연령, 지역분포 등의 역학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잘 구조화된 대조군 연구와 한계점들을 보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V. 결론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어머니

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더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더 직관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는 더 합리적이고 더 직관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점수가 높은 자녀는 더 의존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우울이 자녀의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인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유형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등의 내적 요인도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유형뿐만 아니라 종속변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내적 요인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1] 허정철,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9호, pp.504-513, 2010.
- [2] 정은선, 조한익,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1호, pp.209-227, 2009.
- [3] 박영호, 유영애,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제11권, 제2호, pp.341-373, 2001.
- [4] 안광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진로 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5] 김애숙,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대진대학교 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6] 김형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결정과정의 관계*,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7] 정성경, 남상인, “상담 일반: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 및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6권, 제4호, pp.1127-1135, 2005.
- [8] 송소원,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학생생활연구(학생지도연구)*, 제14권, pp.1-22, 2001.
- [9] 최석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0] 염소림, 최유석,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255-266, 2014.
- [11] 이현시, 이윤주,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이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6권, 제1호, pp.197-209, 2005.
- [12] 신효식, 김근화,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제7권, 제2호, pp.47-58, 2004.
- [13] 이희자, 김경원,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제9권, 제3호, pp.283-295, 2000.
- [14] 국길숙, 이미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제23권, 제1호, pp.89-107, 2003.
- [15] 박정희, 이은희,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1호, pp.103-123, 2008.
- [16] 이혜순, 옥지원,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38-446, 2012.
- [17] 박진채, 홍경자,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결정, 진로결정 효능감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제1권, 제1호, pp.37-52, 2004.
- [18] 이현숙, 조한익,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1호, pp.89-105, 2004.
- [19] 허정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8호, pp.433-441, 2009.
- [20] 김종운, 최미숙, “가족기능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교육연구지*, 제30권, 제3호, pp.175-196, 2011.
- [21] 김희수, 홍성훈, 윤은종,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37-65, 2005.
- [22] 공윤정, “진로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pp.27-43, 2014.
- [23]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24] 이현주, “진로결정과정 개인적 변인들의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223-276, 1998.
- [25] S. Jackson, J. Bijstra, L. Oostra, and H. Bosma, “Adolescents’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relative to specific aspects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rs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ce*, Vol.21, No.3, pp.305-322, 1998.
- [26] 김은주, 임지영, 최경원, “경인지역 보건소 방문 간호사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pp.324-332, 2011.
- [27] 장해순, 강태완,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3권, 제2호, pp.104-130, 2005.

[28] H. L. Barnes and D. H. Ols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Vol.56, No.2, pp.438-447, 1985.

[29] V. A. Harren,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 No.2, pp.119-133, 1979.

[30] R. F. Baumeister,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Random House, 1998.

[31] P. A. Thoits,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5, No.1, pp.53-79, 1995.

[32]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고서, 여성가족부, 2014.

[33] 김윤희,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34] M. Rosenberg,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Vol.61, No.52, 1965.

[35] 전병재, *자아존중감 도구측정*, 연세논총, 1974.

[36] L. S. Radloff,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1, No.3, pp.385-401, 1977.

[37] 전경규, 이민규,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pp.65-76, 1992.

[38] 최인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26권, 제3호, pp.611-628, 2007.

저 자 소 개

서 용 원(Yong Won Seo)

정회원



- 200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2018년 2월 : 단국대학교 상담심리학과(석사)
- 2018년 2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가족상담 의사소통연구 임상심리

이 지 속(Jee Sook Lee)

정회원



- 1997년 8월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04년 12월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청소년정신건강 ICT융합연구

김 현 순(Hyun Soon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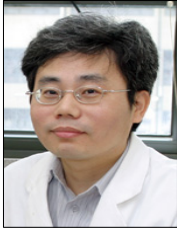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가정학사)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08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진로상담, 성상담, 학교상담, 노인상담

임 명 호(Myung Ho Lim)

정회원



- 1992년 2월 : 충남대학교 의학과 (의학사)
- 2002년 8월 : 단국대학교 정신의학과(의학박사)
- 2003년 3월 ~ 2013년 12월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환경보건의학, 임상심리학, 정신과학